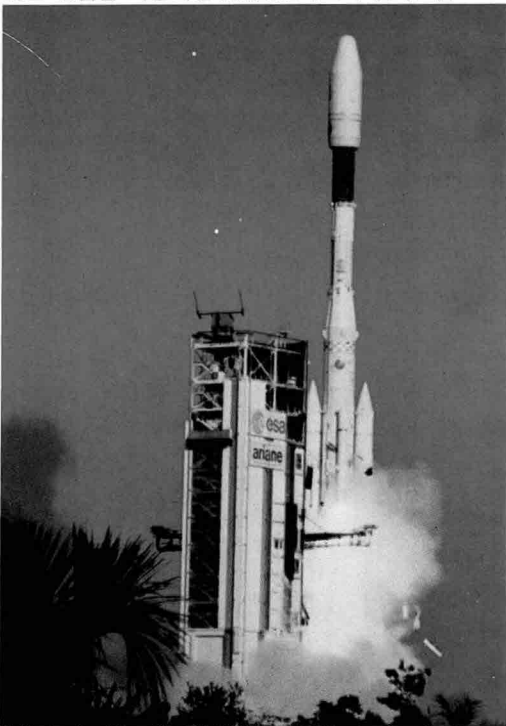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Aerospatiale社



이탈리아의 Aeritalia社와 공동제작한 ATR 42(50인승)㉑와 ATR 72(66/70인승)㉒ 지역운송기(Commuter)

저렴한 가격으로 2,000kg~4,200kg급 위성의 궤도 진입을 가능케한 ARIANE 4호의 발사모습



Aerospatiale사는 프랑스 국영 기업체로서 1970년 1월 1일부로 프랑스 전역에 산재되어 있던 우주항공관련회사를 통합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항공기, 헬기, 전술 미사일 및 우주항공 등 4개 분야가 있으며, 유럽의 우주 항공 관련 회사들과 컨소시엄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Aerospatiale사는 범 세계적 기업이라는 취지하에 우방국과 함께 여러 우주항공분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항공기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초음속 여객기인 'CONCORDE'와 경제적인 항공기로 알려진 여러 종류의 'AIRBUS'를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헬기 분야에서는 경량급의 'ECUREUIL', 중형급의 'DAUPHIN' 및 대형급의 'SUPER PUMA' 외에도 여러급의 군용 및 민간용 헬기를 생산하고 있다.

전술미사일분야에서는 대함용 전술미사일인 'EXOCET', 정밀레이저 유도 공대지 미사일인



군용 대형 헬기 COUGAR (SUPER PUMA)

‘AS 30L’, 대전차 미사일인 ‘MILAN’, ‘HOT’와 ‘ERYX’ 외에도 여러 전술 미사일들이 생산 중에 있다.

또한, 우주항공분야에서는 통신위성, 과학위성 및 기상 위성체가 Aerospatiale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위성 발사체는 Aerospatiale사를 위시하여 유럽의 여러 우주관련 회사들이 ‘ARIANE’를 공동생산하고 있다.

고객들의 취향과 다변화되어가는 요구에 부응코져, Aerospatiale사는 다재다능한 전문가 및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은 물론, 각종 제품의 성능향상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매년 총 매출액의 약 30%를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하고 있다.

AIR BUS의 최신 기종인 A340.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4발 제트 신세대 항공기이다



Exocet MM 40 미사일

Aerospatiale의 전략은 미래지향의 기술, 미래지향의 사고, 미래지향의 제품개발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즉 과감한 기술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최첨단 기술의 세계를 앞당기는 것이다.

Aerospatiale Group의 1992년도 총매출액은 523억 프랑(한화 약 7조 5,835억원)이며, 1992년말 현재 Aerospatiale사의 전 임직원수는 36,775명으로 프랑스 전역에 있는 공장 및 사무실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

1991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획득하여 Aerospatiale 한국지사가 문을 연 이래로 우리의 항공 우주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